

복간4호

# 후원회소식

1992. 1. 20

발행 :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82-7 (110-542)

전화 : (02) 763-2808, 745-5604

## “ < 후원회 소식 > 지를 다시 내면서 ----- ”

회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새해가 밝아왔고 나라 안팎의 여러 움직임도 발빠른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들 후원회가 실질적으로 엮어 낼 목표를 양심수가 없는 세상 오랜 욕구를 치루신 분들의 건강과 자유롭고 창조적인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자니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자주, 민중주체의 평화통일로의 노력은 더 큰 테두리의 후원사업일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욕심과 작은 소망이 함께 있는 헌신적인 실천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일찍 손떼지 말고 작다고 함부로 고개 돌리지 말아야 하겠지요

새해들어 후원회에서는 새로 '회원소식지'를 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 후원회를 꾸려낸 뒤 모두 세번을 낸 바 있었습니다만, 갇힌분 고통받는 분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는 일을 하기 위해 비용절약의 뜻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나 후원회일은 바로 회원님들의 주체적의지의 표현이기에 빠른 소식전달과 그때 그때의 회원님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소중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있었던 설문조사 결과 많은 분들이 후원회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고 있다는 판단때문에 빠른 소식전달, 갇혔거나 나오신 양심수, 특히 장기수분들의 동정과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움직임의 모습들을 엮어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용문제를 걱정하시는 회원님들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여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는 소규모의 소식지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 ! 한결같이 위로해주시고 채찍질하시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알맞는 일과 의견으로 후원회일에 큰 보탬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원님과 가정에 언제나 평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회장 권 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 연말 영치금 차입이 있었습니다.  
12월 연말을 맞아 감옥의 장기복역 양심수 96명 전원에게 각 20,000씩의 영치금과 손수 정성스럽게 쓴 연하장을 발송했습니다. 또 가족이 없는 시국사범 양심수 40명에게도 각 20,000씩의 영치금과 연하장을 발송했습니다.
-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2월 6.7일 세종대에서 민가협 주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에 사무국에서 보내준 초대권으로 100여명의 회원이 참가 관람했으며, 후원회에서는 일시적으로 “회원 노래팀”을 조직하여 청중을 상대로 후원회원 가입 선전과 노래 발표를 하였습니다.
- 후원회원 설문조사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회원들에게 보낸 설문지 중 100여부가 도착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여러분들의 성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회 사무국에서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화 할 계획입니다.
- 편지쓰기를 희망하는 후원회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후원회 사무실에서 설문지를 통해 편지쓰기를 희망하는 회원들중 여혜정 회원, 김금자 회원등 4명의 회원이 모여 편지쓰기 방법등을 토론하고, 앞으로 각 세분의 장기수 선생님들을 선정하여 편지쓰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향후 편지쓰기를 함께 하는 정식 모임으로 발전할 것도 검토하였습니다.
- 출소 장기수선생님들과 송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2일에 후원회 회장단과 사무국은 출소장기수 선생님 삼십여분과 신촌의 한 식당에서 한해를 보내는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에는 선생님들의 요청으로 그 규모를 축소하여 치루었습니다.
- 대전교도소 초장기수(20년이상 복역) 선생님들의 연하장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편지한통 써보지도 받아보지도 못한 대전교도소 장기수선생님들이 투쟁을 통해 편지왕래를 처음으로 보장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영치금을 보내 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의 연하장을 사무국으로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편지 내용상의 문제가 없는한 대전교도소의 장기수 선생님들과의 자유로운 서신 왕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후원회와 관계를 갖고 있는 두 단체에서 장기수 영치금 보내기 거리 모금을 했습니다.  
나라사랑청년회 ‘통일사랑’과 초원교회 청년부에서 연말 ‘장기수돕기 가두모금’을 실시하여 각각 1,650,000원과 350,000을 모금하여 영치금으로 넣어달라며 후원회에 맡기어 왔습니다. 실로 큰 고마움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지면을 통해 그 분들의 열정적인 후원활동에 뜨거운 고마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 출소장기수 사섯분이 통일의 한을 품은채 또 돌아가셨습니다.  
이 기상(서울), 최 인정(대전), 조 해수(서울), 김 대봉(전주) 선생님, 박 판수(부산) 선생님. 모두가 분단 조국의 고통을 한몸에 짊어지고 20년 이상의 감옥생활을 하셨으며, 출소한 후에도 오로지 통일 조국의 그날만을 그리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이기상, 조해수 선생님은 가

족이, 최인정, 김대봉, 박판수 선생님은 대전과 전주와 부산의 지역 민주인사들에 의해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후원회 사무국에서는 다섯분의 장례식에 참가하여 고인들의 죽음을 함께 애도 했습니다.

○ 지난 12월 23일 장기복역 양심수 6명이 출소하셨습니다.

사회 각계의 장기수 석방의 여론이 높아가는 가운데 연말에 6명의 장기수 선생님들이 석방되었습니다. 특히 대전교도소의 초장기수가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장기수 석방과 후원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분들의 노력의 성과입니다. 출소하신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김 석형 79세, 32년 복역, 대전교도소.      \* 박 봉현 73세, 31년 복역, 대전교도소.
- \* 임 병호 76세, 31년 복역, 대전교도소.      \* 조 창손 62세, 30년 복역, 대전교도소.
- \* 이 연종 75세, 11년 복역, 대구교도소      \* 이 창국 70세, 8년 복역, 안동교도소.

그러나 이분들의 석방의 기쁨과 함께 아직도 옥중에 있는 90명의 장기수분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들 중에는 70세 이상이 11명, 30년 이상 복역자가 11명이나 되며 42년째 복역중인 분도 2명이나 됩니다.

후원회에서는 출소하신후 가족이 없어 '아산 요양원'으로 거소가 결정된 김석형, 조창손 선생님을 찾아 뵙고 근황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분들의 당면 어려움은 출소한후에도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문밖에도 나갈 수 없는 또 다른 감옥살이였습니다.

## 이달에 회비를 내주신 분들

### 1. 일반 회비

신 광현 50,000	송 봉길 20,000	최 규성 20,000	하 정호 10,000
김 영애 20,000	김 우용 20,000	이 현희 30,000	조 윤문 40,000
황 금수 100,000	박 승철 10,000	손 지순 10,000	여 혜숙 20,000
김 병근 100,000	손 무명 5,000	곽 영식 5,000	안 혜경 30,000
곽 선옥 7,000	이 숙자 5,000	엄 기순 30,000	박 복미 20,000
김 명호 10,000	양 희석 50,000	이 경미 4,000	김 연실 10,000
김 은정 5,000	박 봉순 20,000	최 광돈 10,000	정 판개 5,000
정 순금 10,000	백 경아 5,000	김 혜순 10,000	우 영옥 5,000
장 해옥 20,000	장 종숙 20,000	구 명희 20,000	이 정규 5,000
신 혜수 10,000	강 상진 5,000	박 귀영 2,000	김 길자 20,000
이 로가 20,000	성 하란 5,000	여 혜정 6,000	김 종규 20,000
노 영주 10,000	권 현옥 30,000	엄 상섭 40,000	한 혜영 10,000
조 미영 10,000	박화나핀 5,000	손 영주 20,000	조 남미 5,000
김 진오 10,000	백 인권 10,000	최 종진 10,000	김 정현 10,000
황 성업 20,000	최 은선 50,000	이 호숙 20,000	김 혜민 50,000
박 송월 20,000	함 승신 5,000	노 은하 10,000	안 종훈 10,000
정 점성 5,000	평 택문 20,000	인 종훈 10,000	전 경진 2,000
김 우택 20,000	서 미란 10,000	박 경희 15,000	박 영서 5,000
성 경화 20,000	배 정미 5,000	김 경주 30,000	이 남영 2,000
김 현숙 40,000	박 정규 10,000	박 해인 10,000	김 성희 10,000
김 양순 10,000	정 신 5,000	신 은주 5,000	강 정숙 10,000
김 언경 2,000	신 윤순 30,000	노 화영 5,000	김 태영 2,000

### 2. 특별회비를 내주신 분들

- 나라사랑 청년회 1,650,890	- 민 들 레 40,000	- 맹 영 선 100,000
- 인천사회연구소 3,000,000	- 열 립 책 방 100,000	- 최 진 100,000
- 소 수 영 100,000	- 조 만 남 100,000	- 구 두 딱 이 5,000
- 창 현 교 회 50,000		

# 15척 담장을 넘어서 날아온 연하장

올해에는 처음으로 대전교도소에서 수신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껏 비전향수들이라는 이유로 가족이외에 일절 편지 왕래가 중단되었기에 그 의미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고 통쾌함인 것입니다. 더욱 이중에서는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쓴 편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을 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 신년은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어.

- 대전교도소 권양섭 선생님 (현재 77세 최고령자) -

★ 묵은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뜨거운 배려 이제서야 감사의 딸이나마 드리게 되는 무례 관용해 주시옵고, 동터오는 새해는 거래의 통일을 경정적으로 앞당기는 해가 되도록 선생님 하시는 일에 앞찬 성과와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 대전교도소 윤용기 선생님 -

★ 먼가깝과 귀가정 위에 송구영신하며 그간 베풀어주신 묵신양면의 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전주교도소 함주명 선생님 -

★ 사연도 많았던 이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조국통일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숭가쁘게 살아온 이 해를 보내면서도 감옥의 동지들에게 묵신양면으로 보살펴 주신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엔 모두가 함께 맞을 수 있는 영광의 해가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전주교도소 김태룡 선생님 -

★ 항상 가족처럼 보살펴주신 그곳 모든 사람들의 열렬한 성원은 저희들의 기쁨과 힘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 대전교도소 김동기 선생님 -

★ 거듭된 고마운

친구은 바람결에 띄웠더이다.

이제 또 사연없는 사랑

급게 쓴 주소만 받아들고

친구은 불려 바람결에 부치려다

이렇게 인연 죽 달아라, 글자하 적습니다.

법지는 못했지만 주신 따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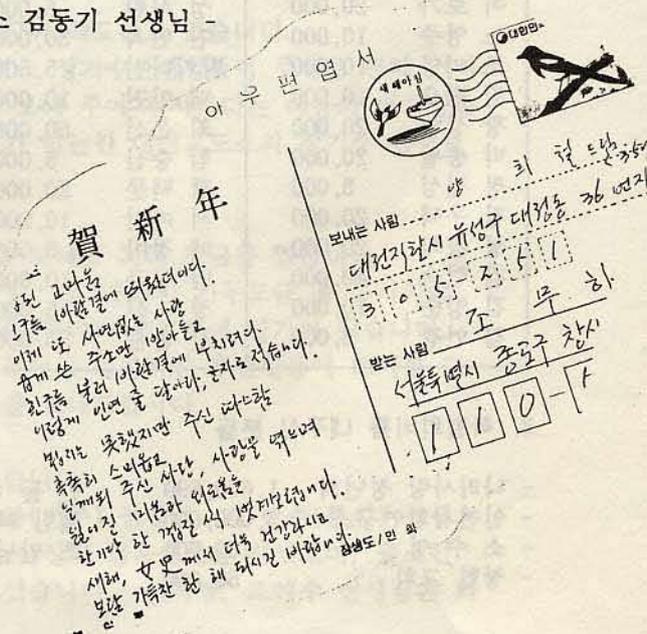
촉촉히 스며들고

일깨워 주신 사랑 사랑을 엮으며

잃어질 미운과 미호운을

한가닥 한 꺾씩씩 벗겨오옵니다.

- 대전교도소 양희철 선생님 -



★ 물심양면으로 염려 해주시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영치급 잘 받아 기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온 집안이 화목 단란하길 바랍니다.

- 대전교도소 김선명 선생님 (42년복역 최장기복역수)

★ 새해 선생님의 몸건강과 만사형통하여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인일이 인사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 대전교도소 안학섭 선생님 -

★ 세모를 보내면서 오랫동안 선생님이 보여주신 육친애 보다도 더 따스한 온정은  
머리 숙여 백배 감사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더욱 빛나는 성라탄 선생님 온 집안에 사랑과 강녕과 화목과 융성 발전이 삼백  
에순날 내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 대전교도소 안영기 선생님 -

★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초대형 기념비적 건물들도 한개의 벽돌을 쌓아올리는 것으  
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귀하의 창조적 활동은 비축 고되고 뚝뚝갠지만 찬란한 조국의 미래  
역사를 쌓는 하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한장의 엽서마저 귀하의 손에 닿을지 불확실성에 사근잡히면서 이 글을 쓰고 있지  
만 내일은 반드시 우리들이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 대전교도소 손성모 선생님 -

★ 선하고 의미있는 일의 수고가 많습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씨에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일이 되면 ○○○씨는 북한 여행중 가는 곳곳에 잠잠 자리타 밥 먹음 곳이 있  
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대전교도소 김성만 선생님 -

★ 건넌 담담한 감사합니다. 처음 카드를 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과 함께있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사회의 여러가지 일로 매우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그간에 여러차례의 극진한 정성이 깃든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참으로 무  
한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어느덧 이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선생과 다른 선  
생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성라탄 항상 건강으로 행복이 깃들길 축원합니다.

- 대전교도소 최선묵 선생님 -



신변은 복 많이 받으시오  
소원 성취 하소서

선생님 안녕 하십니까  
물심 양면으로 염려 해주시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돈 2만원 잘 받아 기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해에 온 집안이 화목 단란하길 바랍니다.  
1991년 12월 11일  
김 선명 올림

영양정 과제가 밤 간직할유기

謹賀新年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안녕 하십니까 신상이 선임을 깨서도 수취기 여러차례 바  
쁘고 잘 원세도 복귀 하신 그전에 여러차례의 극진한  
정성이 깃든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참으로 무  
한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어느덧 이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선생과 선생님의 사업과 생활에  
성라탄 항상 건강으로 행복이 깃들길  
축하드립니다  
1991. 12. 7 김 최선묵 올림



“  
**목중 장기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



1991년 한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기대를 걸어볼만한 합의서 한장을 받았습니

다. “남북간의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목 만큼이나 긴 부속조항을 단 이 합의서가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통일 의 꿈을 이루는 디딤돌이라면 최우선으로 실행되어야 할 일이 있는것 같습니다.

분단조국 47년으로 인해 가장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는 96명의 장기수와 1300여명의 양심수에  
 대한 완전석방과 복권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간 6개의 공화국을 거치면서 정권이 필요에 따라 시시때때로 통일정책이랍시고 남발 했었지  
 만 통일을 위해 자기 한몸을 아끼지 않는 양심수 사동엔 미풍 한번 분 적이 없었습니다.

당국에 의해 수십년을 철저히 감시받고 차단당하던 장기수선생님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돌려  
 진 것은 87년 민주화 대투쟁과 이어진 대선의 투쟁 공간에서 부터였습니다.

우리는 당시 출소하신 몇분 선생님을 뵈면서 옥살이 하신 그 긴 세월을 어림 짐작하기조차 어  
 려웠고, 조국을 위한 그분들의 발자취에 놀라며, 따뜻한 인간적 면모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  
 고 그간 그분들의 삶을 쟁그리 몰랐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우리의 삶을 반성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실천의 방안으로 영치금도 보내고 편지쓰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옥안으로 보내는 편지 한통의 힘은 실로 엄청난 것임을 편지를 받아본 선생님들의 말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분은 꼬박 40년째 편지한통, 면회조차 한번 해보지 못했다가 자신에게 날아온 편지 한통을  
 자기전에 몇번이고 보면서 이제껏 사회와 단절됐다는 생각을 모두 씻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  
 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편지 한통은 수십년간의 아픈 역사를 잊어왔던 스스로의 반성문이며, 수십년간  
 을 바깥세계와 차단당한채 살아오신 그분들의 비어버린 시간과 고통의 상처를 매우는 불기운이기  
 도 할 것입니다. 올해를 장기수선생님들의 완전석방 원년으로 삼아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편지쓰  
 기 사업을 힘있게 전개합시다.

우리의 생활이 바쁘고, 선뜻 용기를 내기가 어렵겠지만 0.75평 독방에서 수십년간을 통일된 조  
 국산하를 밟을 그날을 그리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심정에 견준다면 그리도 바쁘고 주저스러운 일  
 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편지를 받아본 기쁨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우리 그 기쁨을 15척 담장안으  
 로 넘어 보냅니다. 우리 장기수 선생님들과의 편지쓰기 교류를 통해 인간적 나눔의 기쁨을 함께  
 느끼도록 합시다.

□□□ 목중 장기수에게 편지 보낼때의 주의사항 □□□

- 교도소에서 장기수와 편지교류를 가급적이면 봉쇄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여타의 주의  
 사항을 준수하면 편지를 받지 않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 편지 결봉에 반드시 수번과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기입하여 보내야 합니다.
- 편지 내용중 '민가협'이나 '양심수 후원회원'이라는 말을 쓸 경우 편지가 불허됩니다. 철저히  
 개인이 보내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 편지 내용중 '통일' '분단' 등과 같은 직접적 어투를 가급적 지양하고 우회적인 말로 써야만  
 편지가 허가됩니다.
- 편지의 내용은 가능한한 선언적이고, 동정적인 내용보다는 자신의 삶속에서 느꼈던 일들이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쓰는 것이 감옥안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지는 인간적 교류라는 점을 유념하면 좋을 듯 합니다.)

○ 처음 보내는 편지는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보내보고 두차례 보낼때까지 답장이 없으면, 다른 분으로 상대를 바꾸어 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기타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후원회는 여러분의 편지 한통이 감옥안에 계신 장기수 선생님들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될 것입니다.

### ☐☐☐☐ 교도소 주소 ☐☐☐☐

- 대전 교도소 -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6번지 ☎ 305 - 251
- 광주 교도소 - 광주시 북구 문흥동 88-1번지 ☎ 500 - 110
- 전주 교도소 - 전북 전주시 평화동 3 - 99 ☎ 560 - 280
- 대구 교도소 - 경북 달성군 화원면 천내동 147번지 ☎ 711 - 830
- 안동 교도소 - 경북 안동군 풍산읍 상리3동 121번지 ☎ 762 - 800

### ☆☆ 장기 복역 양심수 명단 ☆☆

이름	나이	교도소	수번	형기	수감일	복역연수	분류
1 강희철	34세	광주	1780	무기	88.	5년복역	일본관련
2 김철	62세 (31.9.18)	광주	2582	7년	89.4.26	4sus	일본관련
3 김용태		광주	1997	14년	85.	7년복역	개별국보
4 김윤수	57세	광주	2455	15년	85.6.24	7년복역	일본관련
5 박중은	47세 (45.09.02)	광주	3211	무기	81.03.09	12년복역	
6 신상봉	65세 (26.11.01)	광주	1769	10년6	85.04.23	8년복역	일본관련
7 유중안	61세 (32.11.20)	광주	2132	15년	85.03.18	8년복역	일본관련
8 이상철	43세	광주	2473	17년	83.12.21	9년복역	남북어부
9 이장형	61	광주	1563	무기	85.	7년복역	일본관련
10 최수열	28세	광주	2073	15년	87.6.22	5년복역	월북기도
11 김장호	52세	대구	3122	20년	84.	8년복역	재일교포
12 김정묵	58세	대구	3119	무기	82.	10복역	남북어부
13 김태홍	35세	대구	3100	20년	81.9.9	12년복역	재일교포
14 나중인	55세	대구	3158	15년	85.4.20	8년복역	행방불명자가족사건
15 박수관	48세	대구	3245	무기		8년복역	개별국보
16 박찬우	32세	대구	3205	15년	84.7	8년복역	월북기도
17 서경은	52세	대구	3185	15년	84.7	9년복역	개별국보
18 인승은	62세	대구	3151	무기	81.12.6	11년	
19 양동화	35세	대구	3265	무기	85.9.9.	8년복역	민주화운동관련
20 정영	52세 (41.02.25)	대구	3236	무기	83.09.13	9년복역	남북어부
21 최선용	51세	대구	3125	12년	86.1.30	7년복역	일본관련
22 강용주	31세	대전	4040	무기	85.9.9	7년복역	민주화운동관련
23 고성화	76세 (16.8.20)	대전	3593	무기	73.3.16	20년복역	남파 (진해)
24 권양섭	74세 (17.7.27)	대전	3525	무기	72.2.05	20년복역	조직사건 (부산)
25 김동기	60세 (32.10.19)	대전	3638	무기	66.5.18	27년복역	남파 (진양)
26 김명수	71세 (22.5.01)	대전	3641	무기	57.7.28	36년복역	남파 (철원)
27 김선명	67세 (25.2.20)	대전	3597	무기	51.10.15	41년복역	남파 (철원)
28 김성만	36세 (56.10.10)	대전	3608	무기	85.9.9	8년복역	민주화운동관련
29 김용수	61세 (31.9.30)	대전	3817		67.8.20	26	남파
30 김은찬	62세 (30.7.12)	대전	3604	무기	69.9.08	23년복역	남파 (가평)
31 김익진	62세 (30.7.13)	대전	3574	무기	69.6.10	23년복역	남파 (목호)
32 김인수	69세 (23.5.07)	대전	3618	무기	62.8.12	28년복역	남파 (평창)
33 김창원	60세 (33.10.17)	대전	3637	무기	69.6.12	22년복역	남파 (용산)

34	박문재	70세 (23.9.14)	대전	3625	무기	79.6.16	13년 복역	개별국보(부산)
35	박왕규	63세 (30.4.10)	대전	3624	무기	67.9.09	26년 복역	남파 (대전)
36	박중린	60세 (33.3.)	대전	3553	무기	59.12.	35년 복역	남파 (서울)
37	손성모	63세 (30.1.15)	대전	3560	무기	81.2.15	13	남파(문경)
38	신광수	64세 (29.6.27)	대전	3629	무기	85.2.16	8년 복역	재일교포(공항)
39	신귀영	56세	대전	3886	15년	80.	13년	일본관련
40	신인영	63세 (29.12.06)	대전	3506	무기	67.3.09	25년 복역	남파 (부산)
41	안영기	63세 (29.6.19)	대전	3530	무기	62.8.12	30년 복역	남파 (평창)
42	안학섭	62세 (30.4.07)	대전	3536	무기	53.3.	40년 복역	남파(정선)
43	안희철	58세 (35.11.17)	대전	3897	15년	76.12.	16년 복역	남파 (인천)
44	양정호	62세 (31.4.03)	대전	3630	무기	69.6.18	23년 복역	남파 (동래)
45	양형석	59세 (34.9.25)	대전	3578	무기	63.4.24	30년 복역	남파 (서울)
46	오홍용	58세 (30.4.05)	대전	3565	무기	69.6.12	23년 복역	남파 (용산)
47	우원호	63세 (29.11.28)	대전	3514	무기	58.2.09	34년 복역	남파 (영일)
48	윤수갑	70세 (23.4.07)	대전	3933	7년	89.04.16	4	방북사건
49	윤용기	67세 (26.7.02)	대전	3649	무기	67.9	28년 복역	남파 (부산)
50	이경찬	58세 (35.10.15)	대전	3615	무기	59.7.03	33년 복역	남파 (강화도)
51	이공손	58세 (34.12.03)	대전	3634	무기	65.8.12	27년 복역	남파 (서울)
52	이재룡	48세 (44.10.02)	대전	3620	무기	67.12.10	26년 복역	남파 (당진)
53	이중환	70세 (22.01.05)	대전	3620	무기	70.6.19	22년 복역	남북어부 (대구)
54	이준호	43세 (49.5.14)	대전	3853	7년	85.01.09	8년 복역	행불자 가족(서울)
55	장병락	59세 (34.7.25)	대전	3645	무기	62.4.05	31년 복역	남파 (울산)
56	장의상	41세	대전	3906	8년	87.7.5	6년 복역	민주화운동관련
57	조상목	46세 (46.3.09)	대전	3592	무기	78.1.	14년 복역	일본관련
58	최수일	65세 (28.7.17)	대전	3612	무기	62.8.12	31년 복역	남파 (강화도)
59	최하중	53세 (39.5.25)	대전	3586	무기	65.3.04	28년 복역	남파 (울릉도)
60	한정호	66세 (27.3.21)	대전	3561	무기	62.3.05	31년 복역	남파 (영등포)
61	홍명기	70세 (23.5.01)	대전	3542	무기	57.11.20	37년 복역	남파 (서울)
62	홍문거	68세 (25.5.21)	대전	3501	무기	67.9.17	26년 복역	남파 (천안)
63	서순택	63세 (29.4.05)	대전	3573	무기	62.4.05	31년 복역	남파
64	서순택	72세 (21.9.14)	대전	3550	무기	57.5.30	37년 복역	남파 (서울)
65	서순택	64세 (29.07.09)	대전	3635		89.01.29		
66	김기문	62세	안동	1330	14년	89.01.19	4년 복역	일본관련
67	김병주	70세	안동	1368	20년	89.5.16	9년 복역	재일교포
68	유정식	53세	안동	1311	무기	83.11.28	19년 복역	일본관련
69	이병실	58세	안동	1360	12년	74.	6년 복역	민주화운동관련
70	이성우	69세	안동	1360	20년	86.7	9년 복역	재일교포
71	조봉수	51세	안동	1341	20년	84	8년 복역	개별국보
72	문익환	74세	안동	1312	7년	84.8.13	4년 복역	방북사건
73	최해보	74세	안동	1338	7년	89.	8년 복역	일본관련
74	황대권	66세	안동	1320	15년	85.	8년 복역	민주화운동관련
75	고창표	36세	안동	1317	20년	85.9.9	8년 복역	민주화운동관련
76	김요한	60세	전주	2091	15년	83.12.1	9년 복역	월북기도
77	김태룡	46세 (55.01.04)	전주	2141	15년	80.05.10	13년 복역	조직사건
78	김태태	46세	전주	2062	무기	79.7	13년 복역	조직사건
79	문철태	63세	전주	무기			7년 복역	개별국보
80	방양근	전주	2125	7년	89.06.28			방북사건
81	석달은	61세	전주	2120	무기	80.10.06	13년 복역	행불자 가족
82	손유형	64세 (29.10.10)	전주	2039	20년	81.04.25	12년 복역	재일교포
83	유재선	61세 (32.06.15)	전주	2327	무기	83.11.12	10년 복역	재일교포
84	이헌치	41세	전주	2038	20년	81.10.19	12년 복역	재일교포
85	진창식	47세	전주	2679	무기	79.7	13년 복역	조직사건
86	천광섭	70세	전주	2046	무기	80.10.12	13년 복역	남파
87	함주명	62세	전주	2329	무기	83.2.18	10년 복역	월남자
88	서경원	56세 (37.07.08)	전주	55	10년	89.6.28	4	방북사건
89	김현장	청주	669	7년	89	4		방북관련

## ♡ 모범적인 장기수 후원 활동 모임 ♡

--- 이화여대 민주동문회 장기수 후원 모임을 찾아서 ---

“총무님 어렵게 모은 돈이니만큼 통장만 간직하게 아니라 돈도 먹히고 유익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채농이를 해야겠구먼”

“후원회원들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벌겍게 달아오른 가스 스토브의 불길보다도 밥상을 잇대어 놓은 책상앞에 둘러앉은 10여명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기는 더 뜨거웠다.

이화여대 민주동우회 장기복역양심수 후원회모임.

30여명으로 구성된 후원모임이 이민동내에서 만들어진 것은 지난 5월이었다. 사회적으로 통일의 열기가 높아가던 시기에 문화적인 매체를 통해서만 장기복역양심수들의 문제를 접해오던 우리 동문회원들은 일상적인 생활인이었지만 분단된 역사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함께 느끼고 싶었다. 차츰 그분들의 생활 모습을 알게되면서 더욱 우리들은 그분들에게 얼마남지 않은 인생이나마 따뜻한 인간의 체취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으나 갑자기 발이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은 결코 충동적인 호기심이 아니었다.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의 도움을 받아 5 - 6명으로 구성된 각 모임에서 출소하신 할아버지 한분씩과 결연을 맺었고 활동을 시작한지 7개월여에 접어드는 지금은 할아버지들과 편지와 만남을 통해 많이 친숙해졌다.

민족을 위해 훌륭한 일꾼이 되시라며 손을 잡아 주시던 이내선 할아버님, 시들어가는 인생에 삶의 향기가 되어 주었다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신인수 할아버님 거동이 불편한 중에도 서울로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시던 유한옥 할아버지, 젊음이 못지않은 열정을 지니신 김종호할아버님 하얀 수염을 멋지게 간직하고 계신 최남규할아버님, 한달에 한번씩 만나 각 모임의 활동을 보고하고 서로간에 도움을 주고 받던 우리들은 다른 할아버님의 근황을 들을때마다 우리들의 힘이 선생님들에게 삶의 의욕을 다시금 불려일으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 없었다. 10월 27일 우리들은 또 다른 동문회원들에게 이분들의 삶을 알리고자 1일 주점과 바자회를 연세민주동문회와 함께 열었다.

다행히 팔 걷어부치고 일을 맡아나선 선배님들과 회원들의 참여로 약 350만원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그중 일부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를 통해 출소하신 분들과 아직도 교도소에 남아계신 장기복역 양심수들을 위해 써달라고 전달하고, 약간의 돈은 우리 후원회가 쓸 수 있도록 적립해두었다.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 뇌종양이아닌가 걱정하면서도 컴퓨터 촬영비가 없어 정확한 진단을 하지못하시는 김종호 할아버님의 건강진단 비용으로 지출키고 하였다.

우리 회원들은 요즘 생활에 힘이 넘친다.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후원회 활동이 이렇듯 큰 감동으로 차지할줄 몰랐기 때문이다. 험악하고 메마르기만한 이사회와 한쪽 귀퉁이에서는 이치런 인간과 인간이 만나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힘이 되어주는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

우리는 할아버지들에게, 할아버지들은 우리에게 서로 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굳은 의지로 더욱 힘차게 하나가 될 것이다.

## ▶ 제 안

### “취미별 소모임의 활성화로 후원회를 더욱 굳건히 하자.”

양심수후원회가 89년 발족한 이래로 4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후원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옥중 장기수와 출소 장기수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잡아가는 후원회의 성장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지만 항상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회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후원사업을 공유해내는 기회가 드물었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회원들간의 끈끈한 공동체감이 아직껏 자라나지 않아 회비납부만으로 그치고 만다는 염려가 그것입니다.

후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형태와 힘이 필요합니다. 지난 연말에 거두었던 설문지 통계를 내본 결과로도 대개의 회원이 소모임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후원회가 펼친 알찬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보다 빨라지게 뭉칠 수 있는 후원회의 건설을 위해 우선 소모임 활동을 꾸리자고 제안합니다.

먼저 취미별로 다양한 모임의 형태를 꾸립시다.

소식으로만 들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세상 살아가는 어려움도 토로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작은 공간을 회원여러분이 주체가 되어 꾸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의 벽을 허물고 감옥의 높은 담을 허물어 뜨리고자 모인 우리 회원들은 소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을 보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양심대로 생각하고 실천했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그날! 모든 양심수가 석방될 때 우리 후원을 흥겨운 마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다시 전진합시다!

우리가 처음부터 한자리에 모이기는 어렵겠지만 소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우선 의지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창립회원의 조언과 신입회원의 기탄없는 제안을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될 때 우리 후원회는 전국의 양심수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실어나르는 후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 “이런 모임은 어떻습니까?”

후원회 사무국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후원회원들의 바램과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회원과 사무국 관계를 긴밀히 하고 회원 상호간의 만남을 돈독히 하여 우리 후원회가 실제적인 일에 다수가 참여하여 움직이는 후원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취미별 소모임을 회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 모임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회 사무국 (☎ 763 - 2606, 745 - 560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셔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실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등산반

팍팍한 도심의 공기에 우리 몸이 찌들어가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 정말로 순한 대기를 들이 마

시키고 싶어집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악인이 없다 던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산행의 동반자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

양심수후원회 회장님인 권오헌선생님이 등산반을 꾸리는데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가끔 출소하신 장기수선생님들과 산에 오르는 기쁨을 과연 그 어디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 편지쓰기 모임

지난번 설문지와 신입회원이 보내 주신 후원회 가입 신청서를 보면 감옥에 계신 장기수 선생님들께 편지를 보내고 싶어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소개받은 생면부지의 장기수 선생님께 편지를 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분들의 삶의 지난함과 가려져 왔던 역사의 고통이 큰 무게로 느껴지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편지를 개인적으로 주고 받는 것 보다 함께 모여 장기수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지쓰는 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모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더욱 자신이 하는 일에 힘을 얻고, 또한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새롭고 굳건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노래모임

안부르면 입에 달고 다니던 노래도 잊어버립니다.

별다른 준비없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후원회 일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의 역량으로는 노래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반주자와 새로운 노래를 보급시킬 사람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래부르는 것을 즐기시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과 모이기를 원하시는 회원님 중에 뜻이 있는 분에게 그런 역할까지 기대해야 합니다.

### 시사토론반

아침 출근시간에 쫓기다 보면 신문 한 줄 읽기가 어렵습니다. 생활에 파묻혀 이런저런 뒷일을 하다 보면 92년에 나도 무엇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데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읽어내리기 힘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임은 시사문제를 분석하고 해설한 월간지를 회원모두가 읽고 중요한 사안을 몇가지 다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사토론반의 주체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현실과 장기수의 문제를 연관시켜 보는 것이 어떨까요?

### 좋은 영화보는 모임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잠시 여유가 생길 때면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이 영화입니다.

영화 직배반대운동도 잠깐,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영화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화를 어쩔수 없이 보고 나오면서 무비판적인 수용태도에 익숙해진 것은 아닙니까 ?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삶의 태도를 되돌아 보게 하는 영화들을 찾고 골라서 함께 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후원회원들이 만들어 봅시다.

\*\* 위의 모임의 내용을 종합하여 운영하는 종합반을 만들자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 ▶ 회원 투고

### ♪♪♪ 나의 삶, 나의 밀터 ♪♪♪

-- 후원회원 홍 전 영 (나눔 글짓기 교실 교사)

“선생님, 어디 앉으실거예요?”

나보다 먼저 교실에 들어와 있다가 냉큼 묻는 아이의 인삿말이다. 지정된 자리가 없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다 보니까 내 옆자리 쟁탈전이 가끔 벌어지기도 한다. 나이가 어릴수록 큰 소리로 당당하게, 학년이 조금 높으면 은밀하게 소근거리며 묻는 이 말에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조 오기”

하고 손가락질을 해준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솔직한 자기의 말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일이다. 아이들과 나는 엉덩이를 툇툇 방바닥에 대고 앉을 수 있게 꾸민 방에서 교탁상을 놓고 공부한다 그래서인지 숨결도 가깝게 느껴지고, 물기 많은 눈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 볼 수 있다. 동짓날에 대해 설명문을 쓴다고 사전을 가져오라고 한 날 1학년자리 한 녀석은 어머니와 함께 왔다. 중학교 다니는 제 형이 쓰던 작은 사전으로는 성이 안 찾는지 ㄷ~ㄹ까지만 나온 커다란 국어 대사전을 혼자 들고 올 수 없어 그랬단다.

놀라는 내게 그 아이는 “저번에 선생님이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한다.

“저렇게 큰 거 언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나의 반어법을 그대로 이해한 녀석은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두려웠다. 더러운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젖으면 빨아들이는 습같은 아이들에게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어떻게 스며들어갔는지 자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을 반가이 맞아 주지만, 정말 아이들이 그 시간에 있어야 할 곳은 또래 아이들이 모여 얼음뎡도 하고 소리지르며 노는 곳이어야 한다.

숨이 턱에 닿게 달려와서 “저기요 속센학원에서 늦게 끝나서 늦은 거예요” 하는 아이, 시계를 보며 다음 과외 교습시간에 맞춰 대어 갈 걱정을 하는 아홉살짜리 아이를 보면 아무리 내가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을 한다지만 아이들에게 또다른 굴레를 씌워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언젠가 한번은 돌봐줄 사람 없는 추운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죽은 오누이의 이야기를 담은 ‘하늘나라로 가지마’라는 동화를 들려준 적이 있었다.

나중에 감상문을 쓴 걸 보니까 ‘나는 그 처지가 되지 않은 것이 너무 행복하다.’ ‘왜 그렇게 가난한 아버지를 가졌을까’ 하는 내용이 있었다. 하긴 연탄가스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고, 재래식 화장실을 끔찍스러워 하는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이 이 동화의 비극성에 공감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이들의 편한 한계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고 그들의 삶은 자기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나라 소는 얼룩소가 아니라 누렁소니깐 송아지 노래를 부를 때 바꿔 불러야 한다는 내 말에 맞지 않고 <누렁 송아지>를 부르는 아이들을 볼 때, “스톱”라고 하다가 “아차! 잠깐이요”라면서 자기 입을 툇툇 때리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새록새록 생기곤 한다.

세상 어느곳의 아이들이든지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만 가질 수 있는 맑은 눈을 갖고 있다. 나는 요즘 그것을 새삼 느낀다. 그 아이들의 정의로운 미래를 위하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에 더욱 내 열정을 쏟아 부어야겠다.

## ♥♥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한 성탄절 ♥♥

-- 양심수, 장기수를 위한 모금운동을 하고나서

초원교회 청년부 백 송 주

“2000년전 이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초원교회 청년부의 고민이었다. 마치 남의 축제에라도 초대된 양 멋도 모르고 즐기며 마시는 사람들 속에, 백화점마다 가득찬 값비싼 선물 꾸러미속에, 고층 빌딩의 멋드러진 크리스마스 트리속에 박제되어 숨막혀 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서 이땅에 평화를 이루려는 예수의 진실된 모습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을 보내기로 하고 그 대상을 양심수와 장기수로 결정하게 되었다. 방법은 작년의 예를 따라 가두모금을 하기로 하고 날짜는 22-24일 삼일을 잡고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혜화동 전철역으로 결정하였다.

막상 날짜가 잡히고 나니 막막하기만 했다. 처음하는 가두모금, 게다가 양심수와 장기수를 위한 것이고 보니 일단은 마음에서 오는 갈등이 컸고 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무척 염려가 되었다. 그러나 일단 부딪쳐 보자고 생각하고 양심수, 장기수의 현황에 대한 자료집을 살펴본 다음 모금함과 피켓을 만들었다.

모금함을 들고선 거리는 춥고 낯설기만 했다. 시끄럽게 틀어놓은 리어커의 카세트 소리와 거리의 소음이 우리의 작은 외침을 집어삼킬 것만 같아서 소리를 내지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모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도 있었고 피켓을 한참동안 읽어본 다음 고개를 끄덕이며 성의를 표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금에 동참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태도는 분명 일시적인 감정에서 우러난 값싼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단조국에 태어나 이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시다 차디찬 감옥으로 간 천삼백여 양심수들과 분단의 희생양인 장기수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일 것이다.

이때부터 초기에 우려했던 마음이 싹가시고 양심수와 장기수를 위해 모금함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아닌 바로 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삼일간의 모금결과는 예상외로 좋았다. 비록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우리의 뜻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길가에서 수십명 아니 수백명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무척 기뻐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분단된 나라, 그것이 가져온 상처는 너무나 깊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제 이 땅에서 그 상흔은 거두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되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서로 보듬어 주어야 한다.

모금을 마치고 돌아본 서울의 거리는 아직 희망이 있는 도시였다. 분단, 핵, 반민주 악법, 공해..... 이런 단어들로 가득 메워져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이었지만 삼일간 모금함을 스쳤던 손길과 눈길속에서 “이 땅은 아직도 살만한 땅이다”라고 느꼈다.

정의는 어느곳에서든 살아있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통일과 민주화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그리고 그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격려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이 민족은 결국 하나가 되고 말 것이다.

▶ 특 집

후원회원 설문조사 보고서

후원회 사무국에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1월에 후원사업과 연관된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650여 회원중 연락이 가능한 420여명의 회원에게 배포한후 1개월간의 수집 과정을 거쳤습니다.

총 수거된 설문지의 수는 93통으로 22%가 답변에 응해주셨습니다. 비록 수거된 설문지가 많지는 않았으나, 이번 설문 조사로 후원회 사무국은 회원 여러분의 처지와 다양한 의견을 접하게 되어 앞으로의 회원사업에 큰 보탬이 될 중요한 자료가 확보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거된 설문에 근거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대해 정성껏 답변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우선 회원의 구성비율을 보면,

= 성 별 : 남자(42%), 여자(53%), 미확인(5%)

= 연령별: 20대(33%), 30대(37%), 40대(9%), 50대(8%), 60대(5%), 70대(2%), 미확인(6%)

등으로 남자보다는 여자 회원이 다소 많으며, 회원 비율은 20,30대가 압도적 다수이며, 놀라운 점은 60,70대 회원분들도 계시다는 점입니다.

또한 직업별 구성을 보면 회사원(23), 주부(10), 생산직 노동자(6), 학생(6), 교사(5), 상업(4), 학원생(3), 교수(3), 목회자(3), 의사(2), 언론인(2), 공무원(2), 집필가(2), 회계사(1), 부동산소개업(1), 무직(6)등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 회원들이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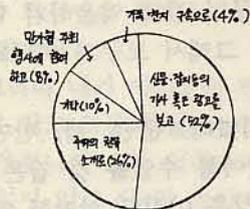
(60대-5%) (70대-2%)

30대 (37%)	20대 (33%)	40대-9%	50대-8%		미확인
-----------	-----------	--------	--------	--	-----

\*\* 후원회의 가입 경위는 '신문,잡지등의 기사 혹은 광고를 보고'(52%), '주위의 권유로'(26%)가 압도적으로 많은것으로 보아 대중매체에의 광고, 기사등의 적극적 활용과 회원 스스로 주위에서의 회원 모집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후원의 형태는 회비납부가 80% 이상으로 기타의 활동이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회원모임과 각기 집에서 할 수 있는 편지쓰기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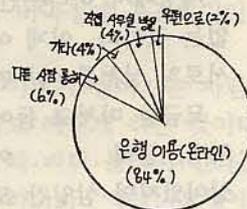
후원회 가입 경위



후원의 형태



회비 납부 기간



\*\* 후원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에 관하여는, 은행 온라인을 통한 납부 방식(84%)이 가장 많았으며, 회비 납부에 있어서 '해당은행이 적고, 자주 있어 먹는등의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GIRO의 활용을 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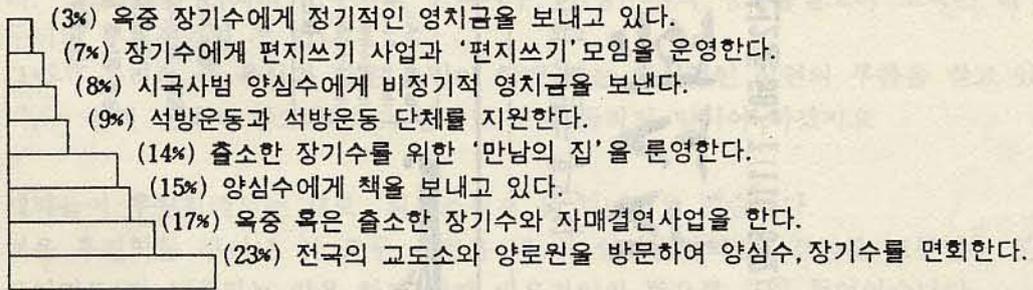
또한 납입 횟수에 대해서는 한달의 1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원이 47%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무국에서는 위의 지적을 참고 삼아 여러가지의 대안을 준비 하려고 합니다.

※ 후원회 사업 내용에 대한 공유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94% 이상이 '대강 혹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열거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많은 항목(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의 출소장기수들이 있는 양로원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23%)과 장기수와 자매결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17%)에 대해 모르는 회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이 후원회의 사업 영역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한가지 이상씩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후원회의 사업 내용을 알게 되는 경로에 대하여는 회보를 통해(72%), 신문등의 기사를 보고(34%),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18%), 사무국과의 만남 혹은 행사의 참여(13%), 기타(3%)의 순 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때 앞으로 후원회 사업에 대한 상세하고도 신속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가능한 직접적인 만남의 장의 확대와 회보에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사무국에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 ▷ 후원회 사업중 몰랐던 내용은 ?



※ 기존에 발행한 '민주가족'(민가협 전체 회보)에 대한 의견은 '발행이 너무도 부정기적이다'(66%)가 다수의 의견 이었으며, 후원회의 자체 소식지의 발행에 대한 의견은 무응답(53%), 찬성(26%), 반대(18%)로 회원님들에게 판단의 근거가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만 만든다는 전제 아래 답아야할 많은 내용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무국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 보고와 회원들이 직접 쓴 글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의 자체 회보를( 8~16쪽 정도의 분량 ) 매달 1회씩 발행하며, 전체 회보가 나올때는 민주가족 내부에 담아내는 방식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후원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생활상의 조건 때문에'(59%), '그 방식과 경로를 모르거나 특별한 계기가 없기 때문에'(37%)로 나타나 회원 대부분이 뜻은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무국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사무국과 회원간에 연락이 자주 이루어지면 극복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회원간의 모임을 원하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6%의 회원이 찬성의 뜻을 보여 주었으며 반대한 의견의 대부분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것일 뿐 그 필요성에는 공감해 주셨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회원 52명은 모임에 참가할 의향도 밝혀 주셨습니다.

모임의 형태는 취미별 모임(38%)를 가장 많이 제안했으며, 장기수 분들과의 개별 혹은 소규모 간담을 많은 분들이(78%)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무국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회원들의 소모임을 올해에는 중심 사업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후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이유.

생활이 바빠서 -- 48%	특별한 계기가 없어서 - 23%	가정주부이 기때문-10%	방식을 몰라- 9%	자꾸 있어서 5%	기 타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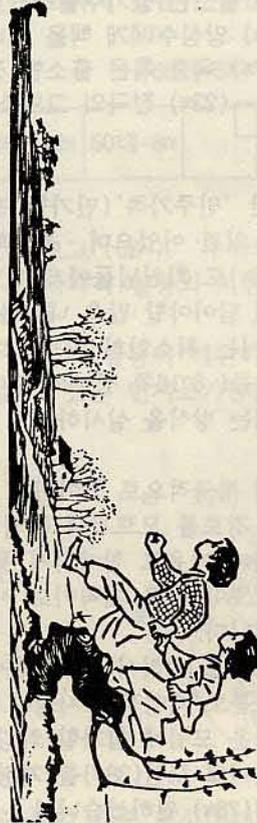
\*\* 마지막으로 후원회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묻는데 대하여는 거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후  
원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각자의 반성과 함께 후원회 일을 수행하고 있는 회장단과 사  
무국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양심수 석방사업 적금지원
2. 정기복역 양심수 후원사업  
(정기적 영치금 발송, 책자, 영치품지원)
3. 시국시범 후원사업(비정기적 영치금 발송)
4. 석방된 정기복역 양심수의 생계지원,  
생계지원 마련사업(구로동 '민남의 집' 운영)
6. 정기복역 양심수, 석방자 중무의 무탁  
자의 지매결연 추진

● 이용하실 송금 계좌

제 일 은 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서울신라은행 15701-89000531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양심수후원회)  
농협 053-01-112892 (양심수후원회)



보내는 이: 민거협 양심수 후원회

# 후원회 소식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110-542)

받는 이:

